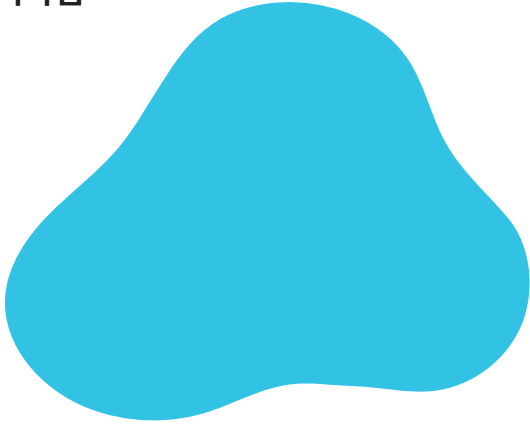


2023 남산소리극축제
반상회_할 말 있는 소리극 동네사람들
기록집



소리극,

이렇게



여기에



2023 남산소리극축제
반상회_할 말 있는 소리극 동네사람들
기록집

**소리극,
이렇게 여기에**

1부

살아온
길,

사랑해온
길

예술가는 한결같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 대상이 미술이든, 무용이든, 글이든 상관없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그 한 가지를 생각한다. 무엇을 경험하든 혹은 자신만의 방에서든 그 한 가지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나만의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마치 귀한 보물이나 놀라운 지식을 혼자만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

〈2023 남산소리극축제〉는 소리와 사랑에 빠져 판소리극(이하 소리극)에 삶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다. 뮤지컬이나 연극에 비해 여전히 생소한 소리극을 창작하고 공연하며 선보이는데 삶의 어느 한 시절을 고스란히 내어 준, 그리고 내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남산국악당이 마련한 자리다.



2023 남산소리극축제 통합포스터

최용석 예술감독은 “이번 남산소리극축제가 소리극, 나아가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연관계자들이 모여 온갖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 무대를 다양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이끌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남산국악당이 5월 한 달 동안 세 번의 주말을 통해 관객을 만나는 공연 외에도 소리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워크숍 그리고 좌담회를 준비한 이유다.

‘판소리트레블러KA2729’(이하 판소리트레블러)의 〈아리랑그리랑〉,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이하 바닥소리)의 〈답들의 꿈, 날다〉 공연이 뜨거운 박수 속에 막을 내리고 ‘창작하는 타루’(이하 타루)의 〈말하는 원숭이〉 공연을 삼 일 앞둔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서울남산국악당 공연장에서 〈반사회 할 말 있는 소리극 동네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는 소리극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누구든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유롭게 활발한 토론을 위해 사전 신청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그렇게 ‘소리극’이라는 동네의 이웃 이십여 명이 모인 오붓한 반사회가 열렸다. 국악방송 라디오 ‘바투의 상사디야’를 진행하는 소리꾼 이상화, 김봉영이 사회를 맡고 타루의 정종임(대표), 김희정(기획자), 판소리트레블러의 김은경(대표 및 소리꾼), 강나현(소리꾼), 바닥소리의 정지혜(대표 및 소리꾼), 전지혜(기획자), 김부영(소리꾼) 그리고 남산소리극축제 최용석 예술감독이 함께했다. 1부에서는 2023남산소리극축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2부에서는 모두 함께 둘러앉아 경계 없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소리극 이십 년, 역사의 주인공들을 한 자리에

최용석 예술감독의 인사말로 1부를 열었다. 2023남산소리극축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던 최용석 예술감독은 민간에서 창작 판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리꾼들을 떠올렸다. 이십 년 전,



2023 남산소리극축제
최용석 예술감독

당시 이삼십 대의 젊은 소리꾼들이 모여 처음으로 소리극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 최용석 예술감독도 있었다. 그는 1995년도에 군대에서 첫 판소리극을 썼다. 제대 후에는 <인사동 거리소리판>이라는 소리판을 만들어 다른 소리꾼들과 함께 주말마다 소리판을 벌였다. 그 뒤로 페스티벌을 만들고, 대회

에 나가며, 우정과 작품을 쌓아오고 있는 시간이 어느덧 20여 년이다. 바닥소리와 타루도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많은 소리꾼들이 단체를 거쳐갔고 그들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흩어지며 소리판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그 모습이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최용석 예술감독은 회상한다.

“그 당시에 만났던 소리꾼들의 이십 년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어떻게 소리를 이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업계 내부의 사적인 대화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작하는 타루 그리고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판소리트레블러KA2729를 모셔서 공연을 하고, 워크숍과 반상회를 통해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반상회에 앞서 바닥소리가 작창(판소리를 짜는 일)에 대해, 타루가 즉흥적인 움직임과 그것이 소리와 만나는 방식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도 반상회와 마찬가지로 누구든 참석할 수 있도록 열었는데 소리꾼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출, 평론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늘도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반상회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 소리극을 좋아해 주셔서 공연장에서 자주 뵙는 분들을 여기서 뵈니 기쁩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라면 민간에서 소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알아봐 주고, 응원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일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남산소리극축제 예술감독 최용석(이하 예술감독 최용석)

진행자 김봉영 소리꾼은 최용석 감독의 말에 “국공립단체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민간단체가 오랫동안 살아남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일”이라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지난 20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소재를 선택해 이야기를 쓰고 어떻게 소리를 짰는지 등 민간단체인 바닥소리, 타루 그리고 판소리트레블러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리와 그리는 창작하는 우리의 모습

판소리트레블러KA2729의 강나현과 김은경은 7년 동안 바닷소리에서 활동한 소리꾼이다. 2020년,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판소리트레블러를 만들었다. 여기저기 다니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의미를 담아 ‘판소리여행자’라는 이름을 지었다. 트레블러(traveler)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에는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멀리 나아가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KA는 항공편명에서, 숫자는 팀을 시작할 때 두 사람의 나이에서 따왔다. 간단히 ‘판트’라고 불려도 좋다.

2023 남산소리극축제에서 선보인 <아리랑 그리랑>은 그들의 첫 창작 소리극이다. 지난해 판소리트레블러는 서울문화재단의 어린이극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단순히 제작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멘토를 지원하고,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1년 동안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오롯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신생단체인 판소리트레블러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리랑 그리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쥐(아리)와 독수리(그리)의 이야기다. 아리



2023 남산소리극축제_아리랑그리랑 포스터

와 그리는 공통의 관심사인 음악을 통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함께 노래를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아리에게 그리가 제안한다. 숲속노래자랑에 참여하자고.

“저희 둘 다 <아리랑 그리랑>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저희가 직접 글도 쓰고 연출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은경 소리꾼과 제가 이 작품을 창작할 때의 모습이 아리와 그리의 대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독수리, 김은경 소리꾼이 쥐입니다(웃음).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정말 즐겁게 봐주셨습니다. 저희도 즐거웠고요. 이 작품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소리극 축제를 연다고 하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판소리트레블러 소리꾼 강나현



아리랑그리랑
공연사진



하나의 소리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가는 작업은 쉽지 않다. 무대 연출, 소품과 조명, 미술까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소리꾼 두 사람이 해내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소리꾼으로서 무대에 설 줄만 알던 저희가 무대를 이루는 모든 결정을 직접 해내고 그것을 각 감독님들께 전달하며 소통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둘이 머리를 참 많이도 맞췄습니다. 하지만 소리 외에 다양한 감각을 배울 수 있었고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 판소리트레블러 소리꾼 강나현

진행을 맡은 이상화 소리꾼은 ‘소리꾼이 소리만 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출을 비롯해 다른 영역을 다 알아야 무대 위에서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봉영 소리꾼은 바닥소리와 판소리트레블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혹 바닥소리에서 어떤 목마름이 있었기에 새로운 팀을 꾸린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강나현 소리꾼은 복사꽃처럼 발그레 웃었다.

“바닥소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변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목청껏 이야기해 보자는 의식이 있는 단체입니다. 판소리트레블러는 조금 더 가볍게, 여행자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리랑 그리랑>을 만들면서 바닥소리에서 글 쓰고, 소리 만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닥소리에서 배운 것을 탈탈 털어 <아리랑 그리랑>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배운 것을 활용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판소리트레블러 소리꾼 강나현



요즘 판소리트레블러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지원 사업에 도전할 뿐 아니라 노래 버스킹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내일이 기대가 된다.

가장자리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 전하자는 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권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의 아픔을 언어화할 수 있는 지식도 권력이다. 때로 우리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설명하지 못해 진단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거리에서, 시장에서, 전화가 너머에서 자세를 낮추고 목소리를 낮춘다. 바닥소리는 그들이 있는 가장자리로, 구석진 곳으로 간다.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신음을 수집한다. 그리고 판소리로, 목청껏 소리 친다. “세상 사람들! 여기 좀 보소!”

“바닥소리가 생긴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귀엽습니다. 판소리를 사랑하던 대학생들이 동아리방에 모여 멋지고 세련된 많은 이름들을 두고 ‘바닥소리’라는 이름을 지으며 가장자리에 있는,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목청 높여 외치자 다짐했지요. 그 당시의 소리꾼들로부터 수많은 소리꾼들이 바닥소리를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국립국악원으로, 누군가는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어요. 저는 바닥소리에 있는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바닥소리 네트워킹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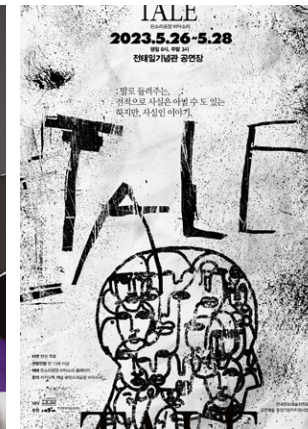
판소리 공장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젊은 소리꾼이 바닥소리를 이끌어 가면 좋겠다며 제게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현재 5명의 소리꾼과 2명의 기획자가 함께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 바닥소리 소리꾼 정지혜

바닥소리의 지난 10년은 의미 있는 작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이름처럼 마치 공장에서 그러하듯. 정지혜 대표는 그 중 세 작품을 꼽았다. <체공녀 강주룡>, <다큐 판소리 TALE>, <소리판 해녀탐정 홍설록>이 그것이다.

“<체공녀 강주룡>은 가장 최근에 올린 작품입니다. 박서련 작가님의 책을 각색하여 만든 소리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농성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연의 기회는 단 3회뿐이었지만 세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소리꾼이 바닥소리를 통해 창작자가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객원 멤버까지 총 8명의 소리꾼이



소리극 체공녀강주룡 포스터



다큐판소리 TALE 포스터



소리판 해녀탐정 홍설록 포스터

함께 판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는 작창을 처음 해보는 소리꾼도 있었어요. 정말 공장처럼 각자 최소 한 곡씩을 맡아 만들었습니다.”

- 바닥소리 소리꾼 정지혜

가장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곡을 만드는 것이 어찌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닥소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작창을 경험한 소리꾼과 그렇지 못한 소리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소리꾼이 작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나눈다. 덕분에 관객은 더 재미있고, 다양한 판소리를 만나게 된다.

“Tale’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말로 들려주는, 전적으로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하지만 사실인’을 덧붙여 제목을 지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뜨거운 외침을 외친 지 50년을 맞아 작품을 만들고자 했는데 글을 쓰는 것부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 이름이 ‘바닥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쓰지는 말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아는 만큼만 쓰자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게임개발자를 저희 소리꾼 한 명 한 명이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의 삶을 담아 만든 작품이 <다큐판소리 TALE>입니다. 의미가 큰 작품이라서 앞으로도 더 많이 공연하고 싶습니다.” - 바닥소리 소리꾼 정지혜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는 한 사람의 배우가 하나의 역할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극 안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판소리에서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심청이도 되었다가 심청이 아버지도, 때로는 바람이나 파도도 된다. 그것이 판소리의 매력이고 소리극에서 소리꾼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하나의 역할을 여러 소리꾼이 하는 작품이 있다. 바닥소리의 <소리판 해녀탐정, 홍설록>이 그것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해녀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록 대신 홍설록, 왓슨 대신 전와선이라는 인물들을 창조해 추리를 엮어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무대에서 관객을 만났고요. 이 작품의 제목이 단순히 <해녀탐정 홍설록>이 아니라 <소리판 해녀탐정 홍설록>인 이유는 ‘소리판의 소리극’이기 때문입니다. 소리꾼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역할을 여러 명의 소리꾼이 해봤습니다. 6명의 소리꾼이 돌아가며 홍설록이 되다가 마지막 장에서는 모두가 홍설록이 됩니다. 판소리적으로도, 장면적으로도 확장의 체험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 바닥소리 소리꾼 정지혜

석 달을 준비했지만 단 3회의 공연 만을 무대에 올린 것처럼, 민간 소리극 단체들의 사정은 여의치 않다. 단원들이 인건비를 받지 않고 아무리 아껴도 음향이나 무대장치 같은 기술지원에 드는 비용이 높다. 그래서 소리꾼들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다른 공연에 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꾸 생긴다. 바닥소리의 멤버들은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다고 한다.

김봉영 소리꾼이 후배들을 보는 마음이 어떤지 묻자 최용석

예술감독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였는지 손사래를 쳤다. 터지는 웃음과 소란이 이내 지나가고 최용석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다. 2023 남산소리극축제의 예술감독인 최용석은 정지혜 공장장에 앞서 바닥소리의 공장장(대표)이었다.

“사실 선배인 우리가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동의를 있었기에 그런 작품들을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여전히 그 생각을 유지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잘합니다. 바닥소리의 공연을 보면서 제가 배웁니다. 팬으로서 대단히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예술감독 최용석

경계를 넘어서 새롭고 오롯한 곳으로

타루는 전통예술을 근간으로 경계 없이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자유로운 창작을 하는 단체다. 현재 경기소리꾼, 서도소리꾼, 판소리꾼 등 10명의 창작자와 2명의 프로듀서가 함께 작품을 만들고 있다. 오랫동안 ‘국악뮤지컬 창작집단 타루’로 스스로를 불려왔던 그들은 21년에 ‘창작하는 타루’라는 새로운 이름을 꺼냈다. 타루의 핵심 가치인 창작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릇을 넓힌 것이라고 대표인 정종임은 설명한다. 그동안 30여 편의 작품을 창작했고 올해도 2개를 준비하고 있다. 2002년 <바퀴벌레 약국의사>를 시작으로 매년 한 편 이상의 작품을 창작했기

에 많은 소리꾼들이 함께했다. 그러니 타루의 23년 역사는 소리극의 역사와 고스란히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타루의 대표 작품들을 따라가며 그 역사를 되짚어봤다.



타루 단체사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이상화 소리꾼을 따라갔다가 타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단 멤버 사진에 이상화 소리꾼이 계시죠.

그 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타루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딴짓’이었습니다. 전통 판소리 하는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저희에게 딴짓하지 말라고, 그거 오래 못 간다고,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학교나, 계파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닫힌 구조가 있었습니다. 공연에서 자기 사람들에게만 추임새를 하고, 자기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맥주나 한 잔 하면서 소통해보자는 마음으로 20대 초중반의 소리꾼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다 보니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동아리 선배에게 300만 원을 빌려서 보증금을 내고 연습실을 빌려 10명이 매달 3만 원씩 월세를 모아 타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창단 공연 <바퀴벌레 약국의사>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 타루 대표 정종임

정종임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타루의 발자취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준비해 왔다. 2002년부터 찍은 사진이 담긴 자신의 외장하드에 그야말로 판소리극의 역사가 담겨 있다며 언젠가 사진전이라도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과연 수많은 소리꾼들의 젊은 시절이 거기 있었다. 앓던 얼굴의 이상화 소리꾼, 한결 날렵한 모습의 김봉영 소리꾼도. 두 사람은 <판소리, 애플 그린을 먹다>에 함께 했다. 2005년 대학로에서, 전통소리극으로는 거의



2023 남산소리극축제
반상회 사회자

최초로 3주 장기 공연을 했는데 이상화 소리꾼이 작품을 이끌어 가는 중심 역할을 맡았다. 공연 후반으로 갈수록 소문이 나서 거의 전 회차가 매진됐다.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처럼 우리끼리 작품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고 그 열정으로 만든 것이 <판소리, 애플 그린을 먹다>입니다. 이 작품으로 많은 관심과 박수 그리고 질투를 받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3년 동안 하나의 민간단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다녀간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재공연을 하고, <시간을 파는 남자>라는 새 작품도 창작하고 단행본 <7년 동안의 기록>도 출판했습니다.”

모든 스태프, 출연자가 극단 시스템처럼 지원금이나 프로젝트



하얀 눈썹 호랑이 포스터



운현궁 로맨스 포스터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포스터

트가 있을 때만 모여서 작품을 만들었다. 국가에서 극단 상주 예술가의 급여를 지원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2011년에는 <하얀 눈썹 호랑이>라는 창작극을 발표했다. ‘올해의 베스트 연극 7’에 선정되고 ‘에그린 뮤지컬 어워즈’에서도 수상한 작품이다. 한국 공연예술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팜스 초이스(PAMS choice)’에도 선정돼 인도 해외 공연도 다녀왔다. 이 작품은 타루 최초의 어린이 공연으로 ‘아이들을 위한 국악 전통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단 공연을 보러 갔던 정종임 대표가 겨우 두어 달 해금 연주를 배운 배우가 무대에 올라 서툰 연주를 잠깐 선보일 뿐인데 ‘국악 공연’이라 내세우는 것을 보고 어린이를 위한, 제대로 된 국악 공연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이다.

2013년에 관객들을 만난 <운현궁 로맨스>는 국악 뮤지컬이라는 수식어의 정점 같은 작품이다. 최초의 여자 소리꾼 진채선과 고종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제1회 창작 국악극대상’에서 4관왕을 수상했다. 작품상, 작곡상, 여자창우상 그리고 전체 대상이다. 10명이 넘는 출연진, 12명의 라이브 공연자, 스태프들까지 50여 명이 함께 만들었다. 타루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작품이기도 하다. 조엘라, 서어진, 송보라, 이상화 등 여러 소리꾼이 출연했다.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는 판소리로 햄릿 이야기를 해보자는 데서 시작했다. ‘두산 아트랩’에 선정되었고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30회 이상 공연을 했다. 세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연극 배우가 두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무대를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에서야 모든 배우가 가발과 의상을 벗고 상여소리를 하며 퇴

장한다. 과연 그런 공연이 가능할까? 확신할 수 없는 도전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타루는 장기 공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이 쉬어도 계속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작품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아, 예술의 전당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해 동안 관객을 만났다. ‘창작하는 타루’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벨벳토끼>, <아기 소리극-환영해>, <두아 : 유월의 눈> 등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있다.



타루 워크숍 사진



“저는 현재의 타루 멤버가 최강이라 생각합니다. 타루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저보다 더 고민하거든요.” - 타루 대표 정종임

타루는 이번 2023 남산소리극축제에서 소리극 창작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기, 전통연희, 극작, 연출 등을 하고 있는 10명의 예술가들과 타루의 작품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창작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비워지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워크숍이라고 정종임 대표는 말한다. 타루는 탈춤, 성악 발성, 발레, 연기, 쎬베 등 전통예술과 인접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다양한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다. 타루가 2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다채로운 소리극을 창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전통예술이라는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23년이었기를 바라며 타루 소개를 마친 정종임 대표는 후배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세계적인 도시락 회사인 ‘스노우 폭스’의 회장 김승호 씨는 ‘내가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가능성을, 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욕심을 내보시고, 목표에 접근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전통, 또는 공연을 조금 안다고, 해봤다고, 혹은 경험이 더 많다고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정 없이 공연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노력을 쏟아 만든 공연, 음악의 가능성,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해봤다는 이유로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만약에 타루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타루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많은 말을 들었고 상처가 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공연을 하면 이런저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작품을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조차 아직 만나보지 못한 가능성을 폄하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해보시고, 용기 내서 목표까지 접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화는 끝이 아쉬운 대화다.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를 스치며 계속 걷고 싶은 밤처럼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대화다.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무대를 정리했다. 반상회에 와주신 분들의 수만큼 무대 위에 의자를 올렸다. 모두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동그랗게 모았다. 환한 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반가운 얼굴들이 손짓과 눈짓으로 인사를 나눴다. 2부는 그렇게 다정한 산책처럼 이어졌다.

2부

**궁금하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반상회가 시작하기 전, 반상회가 열리는 공연장 앞에 놓인 보드에 질문들을 적어 붙여두었다. 사소한 질문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수줍고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QR코드로 입장하는 오픈채팅방도 열었다. 사회를 맡은 두 소리꾼이 질문을 골라 읽으면 자신을 밝히고 이야기를 더 하거나, 곤장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팀원들도 함께 답했다.

2023 남산소리극축제 반상회 사진



2023 남산소리극축제 반상회 사진

질문1. 이미 존재하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소리극으로 바꿔 만들 때 대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이 질문은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는 박슬기 학생으로부터 왔다. 그녀는 자신이 소리극이나 판소리 같은 복합공연을 좋아하다 보니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단은 희곡이나 소설을 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무래도 희곡은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새가 다른데다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판소리의 특성과 결합해도 괜찮을지, 희곡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은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이에 정종임 대표는 햄릿을 판소리극으로 만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희는 작품을 만들 때 아예 없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옛 이야기를 다듬어 만들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어떤 이야기도 답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오는가 보다 그 이야기를 판소리로 짜는 작창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대답이다.

“작가님이 써준 대본을 그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단도 선택해야 하고 누가 부를지, 몇 명이 부를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님의 대본을 가지고 소리꾼과 공동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필수로 합니다.”

작창의 어법은 소리꾼이 안다. 그래서 소리극을 만들고자 한다면 소리꾼과 협업해야 한다고 정종임 대표는 말한다.

질문2. 소리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짧지만 의미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지혜 소리꾼에게 들었다. 자신의 내일도 모르는데 소리극의 미래라니. 하지만 정지혜 소리꾼은 감히 희망을 가져보겠다며 소리극은 날개를 아주 활짝 펴서 활발해질 것이라 답했다. 사실 음악을 지향하는 국악 공연보다 극을 지향하는 소리극은 공연의 규모나 인력 예산이 더 크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소리극공연보다는 음악공연을 한다. 그런 실정에도 과연 소리극의 미래가 밝다고 답할 수 있을까?

“사실 예산 이야기는 정치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하고 싶습니다. 뮤지컬은 시장 규모 자체가 큼니다. 좋은 작품이 나오면 흥런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죠. 하지만 소리극은 시장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을 만들어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리극에 미래가 없다고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들이라면 없는 미래도 만들어낼 것이니 당찬 소리극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겠다.

질문3. 제작진, 객원 멤버 등 구인구직은 오디션 외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입구의 위치다. 도로시처럼 발을 구르든, 해리포터처럼 9와 4분의 3 승강장에 서든 그곳에 갈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에 바닥소리의 전지혜 피디가 답했다. 사실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고 한다.

“보통 소개를 통해 객원 배우나 스태프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단체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보니 사람을 들이는 일에 조금 신중한 편이에요. 실력이 우선되긴 하지만 주변에서 평이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단체 특성도 있고요. 가끔은 공연을 보고 정말 좋았던 파트가 있다면 모르는 분이어도 직접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체공녀 강주룡> 무대디자이너님을 그렇게 섭외하였습니다.”

올 가을에 진행되는 <일상판소리 페스티벌>에서는 새로운 소리꾼을 만나고자 아주 예외적으로 소리꾼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질문4. 창작판소리 최근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타루의 김희정 피디에게 들어봤다. 타루는 한때 국악뮤지컬 창작집단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었다. 그 때는 뮤지컬이 트렌드였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국립창극단이 사용한 ‘창극’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지금의 트렌드는 민간단체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소리, 타루, 입과손 스튜디오, 놀애박스 등등 민간단체가 많아졌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색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어요. 소리극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팀들이 함께 쓰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래 소리꾼이 두 명이어서 작품을 할 때마다 객원 소리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오랜 시간 작업하며 호흡이 맞고, 색이 맞는 일곱 명의 소리꾼을 단원으로 품었어요. 이렇게 인프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타루의 작품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리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창작 노하우가 생기고. 그렇게 팀별로 알록달록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창극단의 공연이 친숙한 이들에게 소리극이란 여전히 낯선 무엇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의 다름이 우리의 소리를 더 다채롭게, 현대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질문5. 소리극은 티켓이 저렴합니다. 그런데다 예술인할인 등등 할인이 많습니다. 때로 기념품이나 떡 같은 선물도 줍니다. 과연 티켓 수익으로 단체 운영이 가능한가요?

애정과 걱정이 듬뿍 담긴 이 질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조수진 학생의 것이다. 뮤지컬 관람을 즐기던 그녀는 정지혜 소리꾼이 참여한 <적벽>을 통해 소리극에 입문했다고 한다. 10만원 이하의 티켓을 보지 못하던 그녀였기에 ‘전석 2만 원’인 소리극에 수익이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타루의 정종임 대표에 따르면 티켓수익으로 운영되는 민간 예술단체는 드물다고 한다. 특히 판소리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극이라는 장르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은 제작비에 맞춰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데 망설인다. 행어나 관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할인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는 것이라고.

질문6. 작창하는 소리꾼들에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가락을 바탕으로 소리를 짜는지, 피아노나 건반으로 선율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리를 짜는지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닮은 세 사람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 영화감독을 목표로 하는 육광수 학생이 질문하고 판소리트레블러의 김은경 소리꾼이 답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소리를 짭니다. 멜로디나 코드 또는 분위기를 찾아놓고 그 위에 판소리의 어법을 올리거나, 기존의 판소리에서 어울릴만한

가락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판소리 외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원하는 분위기나 스타일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창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많은 소리꾼들이 당황한다. 악기를 배우듯 정해진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타루의 서어진 소리꾼도 덧붙였다.

“작창의 방법은 소리꾼마다 다릅니다. 각자 소리의 색이나 질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작창 방식을 찾습니다. 소리꾼들은 직접 글을 쓰고 소리를 엮기 때문에 글에서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드를 만들고 음악을 먼저 만드는 소리꾼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때그때 악상이 떠오르는 작곡가처럼 작업합니다.”

질문7. 공연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제작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티켓수익으로는 단체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도요.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스메이커프로도 님이 묻고 타루에서 연출하는 김희정 피디와 바닥소리의 전지혜 피디에게 대답을 들었다. 김희정 피디는 스스로를 헌터, 사냥꾼이라 불렀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지원서 쓰는 겁니다. 일 년에 열 개, 스무 개 씩 씁니다. 스무 개가 선정되면 스무 작품, 한 개가 선정되면 한 작품으로 일 년이 끝나는 것이죠. 3년짜리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매 년 새롭게 사업을 따라 합니다.”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부서와 단체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에 여러 민간단체들이 경쟁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다음 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활이 달린 것이다.

“바닥소리는 다행히 매년 1개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최대한 아껴서 사용합니다. 소리극 제작비는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평균 8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규모를 아껴서 축소한 예산입니다. 3일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문화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창작산실’의 경우 뮤지컬 제작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어떤 해에는 제가 쓴 지원서가 모조리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안 됐어요. <말하는 원숭이>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작품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8. 소리꾼들이니까 소리를 잘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연기도 잘하고 움직임도 잘하시는지요.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판소리트레블러의 강나현 소리꾼은 <아리랑 그리랑>에서 쥐

를 연기했다. 몸짓과 소리가 겁 많고 소심한 쥐 ‘아리’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연기력이 부족하다며 겸손히 말했다.

“무대에 서는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연기력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여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흥내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해보니 단순한 흥내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기, 연출, 드라마 해석 등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해 배웠습니다. 바닥소리 내에서도 꾸준히 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 판소리의 경우 소리꾼에게 요구되는 연기력은 그 역할 자체가 되는 것보다 관객의 상상을 돕고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리에 따라 연기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소리꾼이 출중한 연기력을 가지는 것은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다.

“저는 타루에서 소리하는 경기소리꾼 공미연입니다. 경기소리(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전승되어 오던 민요를 바탕으로 전승, 발전된 소리)는 민요가 많습니다. 민요의 특성상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작창도 어렵고 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곳에서 연기적인 요소를 모아와 활용합니다. 워크숍을 통한 도움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이에 이수완 씨가 손을 들었다. 그녀는 경기민요를 하는 소

리꾼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자신도 경기소리로 소리극을 만들 때 작창의 한계를 느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공미연 소리꾼이 답했다.

“민요에는 아니리(판소리에서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리꾼이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나가는 것)가 따로 없죠. 그래서 저는 곳에 나오는 공수(무당의 입을 빌려 신이 인간에게 의사를 전하는 일)를 활용해 창조적으로 풀어내는 편입니다. 노래곡은 기본적으로 민요를 활용해요. 물론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지요. 작창을 한 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 노래를 바탕으로 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작창을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날은 삼십 분이든 한 시간이든 시간을 정해서 소리 나오는 대로 불러보기도 해요. 꼭 사용해보고 싶은 가락은 악보에 그리기도 하고, 녹음한 것을 잘라서 이리저리 붙여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작업하다 보면 다양한 어법을 가지기 힘듭니다. 제가 타루와 함께 일하는 이유도 이것인데요. 작창이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시도하면서 개인적인 노하우를 얻었고 그 직후 타루를 만나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경기민요나 서도민요에서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어법을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창법을 사용하되 민요가 가진 색깔을 잃지 않으려요.”

질문9. 소리극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전소설을 전공하고 있는 소설 학생은 최근, 판소리계소설

을 어떻게 변형해 무대, 문학 그리고 영상 예술로 옮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매체에 따라 배경, 인물의 수, 장면의 수, 대사의 분량 등 조절해야 할 사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고 싶더니 그렇다면 소리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창작자들은 무엇을 본질로 붙잡고 소리극을 만드는지 궁금해지더라는 것이다.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판소리 특히 창작판소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말을 전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맛있는 말을 전하는 거구나 하고요.”

정지혜 대표의 대답처럼 모든 판소리는 아니리, 즉 말로 시작한다. 거기에 소리를 붙이며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말은 소리와 메시지로 구성된다. 말을 하되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통 음계에 올려 전하는 것이 판소리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이상화 소리꾼은 덧붙였다. 정종임 대표는 창법을 소리극의 본질로 꼽았다. 어떤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 창법을 유지해야 판소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타루와 지난 10년을 함께 작업해온 이가현 작가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소리와 소리극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리가 아니라 연극을 전공했어요. 그런 제가 타루에 와서 혼란스러웠던 점은, 저는 소리는 말이고 소리꾼은 이야기 전달자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리극 안에서 소리꾼은 인물이 되고 그러면 관객은 극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연극과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소리가 소리극이 되는 과정에서 이야기 전달자이던 소리꾼이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리극을

창작할 때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리가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언어로 감정을, 마치 악기처럼 전달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 관객이 느끼는 어떤 감정의 역동 같은 게 있어요. 소리극을 보러 오는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리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요. 저는 그냥 극이라는 형식을 활용하되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소리꾼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편입니다.”

소리꾼마다 소리의 색과 질감이 다르듯 소리와 소리극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 판소리트레블러의 김은경 소리꾼은 현장성과 추임새로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성도 소리극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연극배우가 소리극을 하면 소리꾼이 하는 것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소리꾼은 가수보다 이야기꾼에 가까운 것 같아요. 판소리를 공부하면서 이야기꾼으로 무대에 서는 것이 체화되었달까요. 그래서 소리극은 연극과 달리, 판소리에서 그러하듯 관객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닥소리에서는 작창을 할 때 관객들이 참여할 지점, 추임새를 하고 반응을 보일 지점들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전통 판소리에서는 소리꾼이 이야기 해설도 하고 대사도 한다. 하지만 소리극에서는 무대 장치가 해설을 대신한다. 여러모로 판소리와 소리극은 차이가 있다. 김봉영 소리꾼은 이야기를 갈무리하며 최용석 예술감독의 의견을 물었다.

“소리극의 본질이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해주신 이야기들 다 동의가 됩니다. 혼자서 해설도 하고 대사도 하던 소리꾼들이 2,30년을 연극과 씨름해서 소리극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글을 쓰고 연출을 하지 않습니다. 매번 고민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무대에 서는 사람이 소리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극을 주로 해온 분들이 간혹 소리꾼을 연극배우처럼 대하는 걸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 소리꾼의 역량이 더 확장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리꾼에게는 소리꾼이 잘하는 걸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꾼은 이야기를 참 잘 꺼냅니다. 묘사도 잘하죠. 요즘 소리꾼들은 글도 쓰고 연출도 합니다.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글을 쓸 때 혼자 판소리 사설하듯이 씁니다. 다채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으니까요.

모름지기 소리극이라면 리듬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판소리의 장단배치를 보면 아주 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진모리로 말았으면 진양으로 풀어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소리극을 접근할 때는 판소리를 알아야 합니다.

소리극의 본질은 여전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꾼들은 음악가가 아니라 이야기꾼, 그러니까 음악이 아닌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음악을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창극·무용극·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음악들을 작업 해왔으며 국악을 바탕으로 한 음악세계를 펼쳐 온 황호준 작곡가는 오늘 이 자리에 판소리를 전공하는 대학생 딸의 학부형으로

참석했다. 딸이 사랑하는 판소리의 오늘과 미래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다는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바닥소리 그리고 타루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들이 견뎌온 20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바로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저는 정답은 아니고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극적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창극을 만듭니다. 다만 판소리를 수십 년간 익힌 사람들과 하죠. 그들에게 어떻게 연극적 행위를 하게 할지 고민합니다. 창극 안에는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습니다. 소리꾼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불리지만 가수의 욕망을 가진 사람, 배우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페라든, 실험적인 현대 뮤지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극을 만들 때는 그걸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극은 따로 떨어진 새롭고 신비한 무엇이 아닙니다. 연극이라는 뿌리는 같고요. 다만 수행하는 이들이 수년간 판소리를 익힌 소리꾼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소리극 현장을 이십 년간 단단히 버텼다는 것이 우리가 소리극을 계속 들여다볼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0. 소설을 소리극으로 바꿀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나 서사 구성에 반영해야 할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타루는 올해 <정수정전>을 무대에 올리시던데 고전소설을 활용하신데 이유가 있는지, 현대적인 요소는 얼마나 어떻게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김선현 교수는 고전소설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그녀는 학생들과

고전문학을 활용해 현대적인 콘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매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타루와 바닥소리의 공연을 통해 소리극을 사랑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고전문학을 소리극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고자 한다고. 이에 타루의 정종임 대표가 답했다.

“두 가지 굵직한 논의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고전 소설의 배경이 된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설과 극은 물리적 시간이 다르다. 독자는 자기만의 속도로 시간을 들여 읽지만 관객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극을 체험한다. 수백 쪽에 달하는 이야기를 두 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어떻게, 얼마나 보여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서술의 순서를 바꾸거나, 길게 설명된 부분을 소리의 한 대목으로 빠르게 넘기기도 한다. 이가현 작가는 덧붙일 말이 있다며 손을 들었다.

“사실 현대인이 고전소설을 읽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변형하거나 통합하기도 하면서 설득력을 갖춘 인물로 재창조합니다.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날 관객들이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를 추려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고전소설을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김희정 피디는 작창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정전>이 왜 연극이나 뮤지컬이 아니라 소리극으로 재

해석되어야 하는지, 왜 소리꾼들의 소리로 이 이야기를 만나야 하는지 관객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정 피디의 말에 김선현 교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대본을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리꾼과 협업이 필요하다면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소리극 창작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

김종운 소리꾼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판소리를 공부하지 않은 어떤 작가는 어플을 켜놓고 판소리의 장단을 들으며 문장을 썼다고 한다. 결국 판소리는 텍스트와 리듬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전공한 소리꾼이 아니라도 판소리 작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을 쓸 때 이것이 판소리, 즉 소리화 된다는 걸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고전소설은 그 어법이 판소리화 하기 편하기 때문에 작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호준 작곡가는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한다며 정지혜 대표와 정종임 대표의 말처럼 결국은 말과 목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산문을 쓰면 문어체에 갇힙니다. 한국적인 서사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말로, 소리로 내뱉어봐야 합니다. 내용이 같아도 전하는 사람에 따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별 것 아닌 이야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판소리는 할머니가 늦은 밤 손자에게 해주는 호랑이와 꽃감이야기 같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호랑이랑 하나도 안 똑같아요.’라고 불평하는 손자는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말하는가, 얼마나 흥미롭게 묘사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야기꾼에게는 설(說), 즉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말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소리에 붙이기 용이한 짧은 문장을 훈련한다면 분명 가능합니다.”

일단 대본을 쓰고 그걸 최대한 재미있게 읽어본다. 그러다 소리 내기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면 입말로 하기 좋게 고친다. 그렇게 하면 소리꾼이 소리로 할 수 있는 대본이 된다는 것이다. 타루는 대본 작업 전에 소리꾼을 포함한 모든 창작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중간에도 소리꾼의 언어로 작창하는 과정을 거친다. 쓰고, 이야기 나누고, 작창하는 과정의 무한 반복이다. 하나의 소리극 작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정성을 쏟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계획한 70분을 훌쩍 넘긴 대화는 아쉬움에 다음을 기약하고 서야 끝을 맺었다.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자고, 오픈 채팅방을 유지하자고, 우리끼리 또 만나자고. 마치 서로의 집 앞을 몇 번이나 오가고도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들처럼 약속하고 다짐했다.

최용석 예술감독은 2023남산소리극축제의 핵심이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라고 말했다.

“공연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판을 벌여 공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자리는 귀해요.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소리극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만남이 또 앞으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낯설고 새로울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 그런 사랑

이 예쁘지만 동경하지는 않는다. 서로의 연약함과 서투름을 발견하고 상황까지 어려워지면 그런 사랑은 식는다. 우리가 동경하는 건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도 여전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애뜻하게 바라보는 노부부의 사랑이다. 반대를 무릅쓰고 서로에게 빠져드는 연인들처럼 여기 모인 이들은 소리극에 빠졌다. 청년의 때 잠깐 지나가는 열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십 년을 한결같이 아끼고 보듬으며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마치 사이좋은 가족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반상회 할 말 있는 소리극 동네사람들〉을 끝으로 2023남산소리극축제가 막을 내렸다. 끝이라기보다는 완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소리극을 만드는 사람, 향유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소리극을 만들어갈 사람까지 한 데 모여 소리극을 향한 사랑을 오롯이 완성했으니까.

소리극축제

예술감독 최용석

사회 김봉영, 이상화

판소리트레블러KA2729

대표 김은경

소리꾼 강나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대표 정지혜

기획 전지혜

소리꾼 김부영

창작하는 타루

대표 정종임

기획 김희정, 한송희

참여자

공미연, 김선현, 김효, 박민정, 박슬기, 박인아,
박효경, 서어진, 성유림, 소설, 심소라, 육광수,
윤지선, 이가현, 이나린, 이수완, 이영찬, 이창훈,
정진새, 조수진, 최민성, 탁지나, 황호준

서울남산국악당

실장 엄국천

기획홍보팀

팀장 이유평

담당PD 김혜경

PD 박예은, 서현재, 유예진

무대기술팀

팀장 김성수

조명감독 이성현

이은정

음향감독 김승왕

김주연

무대감독 박영규

운영지원팀

팀장 정현준

행정 이보라, 전다혜, 천운비

(주) 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용태

사업부문대표 김지옥

에디터 이지혜

홍보물 디자인 VUE